

## What Are You Holding Onto?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anuary 18, 2024

Aloha MPC 'Ohana,

It's amazing what one can find to look at on the internet. The other day, in fact, I stumbled across a homemade video which someone had posted on Youtube.

The video began by focusing on a Venus flytrap. Venus flytraps are carnivorous plants. They have cupped leaves with long talons on them, which close around insects like a toothy mouth. And that "mouth" holds onto the insect as it slowly dissolves, while the Venus flytrap absorbs nutrition from it. Truly the stuff of "Little Shop of Horrors," only in miniature, thankfully.

So, anyway, the Youtube video began with a Venus flytrap. But then, using a pair of tweezers, someone took a little red Hawaiian chili pepper and insert it into the Venus flytrap's "mouth."

Reflexively, the Venus flytrap immediately clamped down and held on tight to the chili pepper, as if it were some juicy bug.

But that's when things got interesting. Because as it absorbed the juices from the chili pepper, the Venus flytrap itself slowly started to change color. From its normal, healthy light green color, the Venus flytrap slowly turned a shade of pale gray-green (it reminded me of the pallor of someone who's seasick).

Then, from pale gray-green the Venus flytrap turned a dull olive drab color, then brown, and finally jet black.

Apparently, the capsaicin compound in Hawaiian chili peppers is poisonous to Venus flytraps. And yet, even as it slowly died, the Venus flytrap never loosened its grip on the chili pepper (which stayed bright red, by the way).

And so the video ended with a shriveled, dead black-colored Venus flytrap clutching a bright red Hawaiian chili pepper. And the very last frame of the film posed a question to viewers like me. "What are you holding onto?" it asked.

*What are you holding onto? What **am I** holding onto?* "Good question," I thought to myself.

It really did make me think. Because the truth is, we human beings can be quite prone to "hold onto" things.

Some of the things we hold onto are healthy and good, of course. We hold happy memories in our hearts, for example.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ays. *Et cetera*. There are indeed plenty of good things we can hold onto.

But we can also be prone to hold onto other things, too. Things that are not good for us in the long run. Things like grudges, bad habits, and pet sins, to name but a few.

And so, the question is an apt one: *What am I holding onto?* And, likewise, what effect is holding onto it (whatever “it” may be) having on me? What effect is it having on those around me? And is that really the outcome I want?

Venus flytraps don’t have brains. Insofar as we know, they don’t get to decide what they’re going to grab or what they’re going to hold onto.

But we, on the other hand, are blessed with that capacity. It’s one of the (many) ways that having a big homo sapien-sized brain is a blessing. So, before any more time goes by in this still relatively-new year goes by, maybe we’d be wise to ask ourselves the question, “What am I holding onto?” and “Do I want to keep holding onto this, or should I maybe decide to let go?”

Me ke aloha,  
Pastor Ron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사실 얼마 전 누군가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집에서 만든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비디오는 금성 파리지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지옥풀은 식충식물입니다.  
그들은 긴 발톱이 달린 컵 모양의 입을 갖고 있는데, 이 발톱은 마치 이빨이 있는 입처럼 곤충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곤충이 천천히 녹으면서 곤충을 붙잡고 있는 반면, 파리지옥풀은 곤충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고맙게도 미니어처로만 된 “공포의 작은 가게”의 물건입니다.  
암튼 유튜브 영상은 파리지옥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핀셋을 사용하여 작은 붉은 하와이 고추를 가져다가 파리지옥의 “입”에 꽂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비너스 파리지옥은 즉각적으로 움켜쥐고 고추를 딱 붙잡았습니다. 마치 육즙이 많은 벌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지옥풀 자체가 고추의 즙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색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밝은 녹색에서 금성 파리지옥은 천천히 연한 회색 녹색으로 변했습니다(배멀미를 하는 사람의 창백함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파리지옥풀은 옅은 회색 녹색에서 칙칙한 올리브색, 갈색, 마지막으로 칙칙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분명히 하와이 고추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 화합물은 파리지옥풀에 유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너스 파리지옥은 천천히 죽어가는 동안에도 칙칙한 회색(그런데 밝은 빨간색으로 유지됨)를 잡은 채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밝은 빨간색 하와이 고추를 쥐고 있는 쪼그라들고 죽은 검은색 금성 파리지옥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나와 같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었다.

\\_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_ 좋은 질문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정말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진실은 우리 인간이 사물을 “붙잡는” 경향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 일부는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우리는 이러한 진실이 자명하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등\\_.

실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도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

원한, 나쁜 습관, 애완동물의 죄 등을 몇 가지만 언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은 적절한 것입니다. \\_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_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붙잡는 것(“그것”이 무엇이든)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일까?

비너스 파리지옥에는 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축복받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크기의 큰 뇌를 갖는 것이 축복이라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비교적 새로운 한 해가 더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계속 붙잡고 싶은가, 아니면 놓아주기로 결정해야 하는가?”

나 알로하,

론 목사